

연중 제 22주일

제 1독서 : 예레 20, 7-9

제 2독서 : 로마 12, 1-2

복 음 : 마태 16, 21-27

순정이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태 16, 25).

강론

“예수를 따르는 길”

김정원 신부 / 베소라 성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 24).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한 참된 제자의 요건을 전제한 것은 당신의 임박한 수난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와 유사한 수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익히 아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당신을 따르기에는 너무 미흡한 제자들에게 당신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수난당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가르치셨던 것이다.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데는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과 외적으로는 역경 가운데서의 적극적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써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옛 사람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육신’(사르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된 인간 그 자체(로마 7, 14, 18)가 됨으로써 그의 이성, 감정, 의지 등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예레 17, 9; 로마 1, 18-32). 바로 이런 본성적인 존재로서는 예수의 제자로 결코 따라 나설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제자의 요건을 망각했던 베드로는 훗날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예수를 부인하고 만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살던 팔레스티나의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마태 27, 32). 예수께서 친히 고타 험한 언덕에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엄숙한 제자로서의 결단의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일은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는 유일·단회적인 행위였으나, 제자들의 십자가 짊어진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생겨나는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행위일 것이다(필립 3, 12-14).

예수를 따르다는 것은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라가라는 강한 명령이 여기 있다. 실로 예수의 제자된 자는 전심전력으로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계속 따라가야 할 것이다.

소리

“따끔한 맛”

올해 농사가 수상쩍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잘돼가던 벼농사가 중순부터 시작된 긴 장마와 장마가 지난 뒤에도 계속된 곳은 날씨가 탓으로 이상이 생겼다.

햇볕 내린 시간이 예년의 절반 가량밖에 안되고 냉해에 병충해까지 겹쳐 전국적으로 벼생산량이 예년보다 3백만섬이나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벼뿐만 아니고 밭작물들도 이상기온의 피해가 커 흉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이 고장에서는 벼농사가 12년 연속 풍년을 이뤘고 저수지와 관정 등 수리시설이 잘 갖춰져 벼농사만은 이제 흉년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또 풍작으로 쌀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연말께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을 두고 농민단체와 정부측이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일이 되풀이 되어 왔으며 정부는 추곡수매를 큰 골치거리로 여겨왔던게 사실이다.

흉년을 반겨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간에는 “한번쯤 흉년이 들어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진심으로 흉년돌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아직도 국내 생산량이 절대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쌀을 풀치덩이로 생각하고 농사와 농민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정부당국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앞으로 벼가 익을 때까지 날씨가 회복되어 지난 여름 이상기온의 피해가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올해 농사가 끝내 흉년을 면치 못한다면 이는 농사를 경시하는 사회풍조와 이제는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들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31

“에사오는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창세 25, 19-34)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25, 19-36장 까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겠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야곱이다. 이삭은 야곱을 위해 조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삭에 대한 독립된 이야기는 26장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야곱에 관한 일들이 주관심사로 등장한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축복이다.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야곱과 에사오의 갈등도 결국은 이삭의 축복 때문에 일어난다.

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쌍둥이 두 아들을 60세에 낳았다. 이 애들의 탄생을 위해서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주님께 빌었다.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증언한다. 이 쌍둥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운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고 불평하는데 자기 자신이 못 살겠다는 것인지 뱃속의 꼬마들이 못 살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어떻게 임신중에 벌써 어머니는 아이들의 갈등에 휘말려든다. 어머니는 하느님이 계시 곳으로 추정되는 성스러운 곳에 가서 뱃속의 애들이 싸우는 이유를 묻는데 이런 신탁은 성조시대에는 없었다. 후대의 종교적 풍습을 앞당겨 묘사하고 있다. 하느님은 명백하게 이유를 밝혀준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신탁은 시로 되어 있는데 두 아이의 싸움을 서로 갈라져 싸우는 두 민족의 정치적 갈등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준다. 신탁에서는 이스라엘의 일반적 관습과는 반대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되어 있다. 이 대목을 기록한 사람들은 솔로몬 왕궁의 서기관들인 야훼스트들이다. 그들은 이미 말한 대로 동생 솔로몬이 형 압살롬을 제치고 왕권을 차지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야곱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저자는 두 아이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에사오는 살결이 붉고 털이 많다고 소개한다. 살결이 붉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붉다’는 뜻의 아돔이라는 형용사와 연관이 있다. 에돔은 붉은 땅이라는 뜻이다. 에사오는 살결이 붉고 에사오에게서 탄생된 에돔족은 붉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털투성이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팔죽으로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모습

‘세일’인데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이라는 이름의 산악지대와 연결된다.

한편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의 아킵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자음이 같다. 그런데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다른 근동 문헌에서 ‘하느님께서 보호하실 지어다’라는 뜻의 고유명사로 등장하는데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야곱의 처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아이가 자라 에사오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친막에 머물러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형에 대해 우월한 위치를 점령한 야곱을 목축업자로 소개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야기 안에서 에사오는 경솔한 소년으로 야곱은 교활하고 재빠른 소년으로 소개한다. 에사오가 죽한 그릇을 청하자 야곱은 상속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얻어낸다.

우리는 에사오의 경솔한 태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끌어낼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선천적으로 받은 생명을 비롯하여 재능이나 건강과 같은 귀중한 선물을 보잘것없는 가치와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동성 연애(전북 총대리점)

삼진요업·한국 지역와 테라코타·성광 요업 각종 적벽돌 KS 제품만 취급 권명자(테레사) 시청 뒤 우진빌딩 옆 ☎ 84-9005

부리더 홈패션 교육실

제2기 무료 수강생 선착순 모집 -8월30일 개강 군산 거주자 홈패션 강사 구함 전주 86-2715 김형문(안드레아) 군산 62-6954 권영자(테레사) 이리 51-2971 조남석

이철현 한의원

이 철 현(암브로시오) 한일테니스장 앞 ☎ (0652)254-7358

백 산 바 위

오리탕, 삼계탕, 메기탕 등 최 상 운(미태오) 박 경 숙(테레사) 상관면 도로관리사업소 옆 ☎ 82-5404

잡간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4. "그레고리오력(Gregorian calendar)"

지구가 스스로 한바퀴 회전하면 1일, 그러면서 태양 둘레를 한바퀴 돌면 1년, 달이 지구 둘레를 돌면서 그 차고 기울고 다시 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1개월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구와 달과 해의 독립된 운동 주기를 결합시켜 놓은 것을 역법(曆法)이라 하며, 인류의 역사는 어느 시대에서나 그 정확한 역산법이 요구되었다.

1년은 365.2425일이고, 4년마다 윤년 즉 2월을 29일로 한다. 그러다가 4로 나누어지지만 100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 즉 2월을 28일까지로 하며, 그중에서 400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다시 윤년이 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른바 양력으로서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제정하고 공포했기 때문에 그레고리오력이라고 한다. 4백년 전에 만들어진 역법이지만 전세계가 사용하고 있고, 실제의 태양년 즉 365.2421949일과 별로 차이가 없어 3300년에 하루가 틀리는 정도로서 그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

교황은 1576년 73m 높이의 바람의 탑을 짓고 내부에 별자리 그림을 그려 놓은 다음, 벽면 5m 높이에 구멍을 뚫어 정오 태양빛이 해당 별자리에 떨어지면 그날을 춘분(3월 21일)으로 정해 왔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달력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춘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절과 대축일의 날짜 계산과 관계가 깊었고, 정확한 날짜에 부활 예식을 거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신앙과 과학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교구 소식

1. 성서교실(전주지구) 수요반 개강 : 9월1일(수) 오전10시 전동교육관.
 2. 초·중·고 교리교사 2차 피정 : 9월4일-5일 나바위 피정의 집.
 3. 가톨릭 문우회 모임 : 9월4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구 휴게실).
 4. 가톨릭 언론인회·방송인회 공소 방문 : 9월5일(일) 오전9시 가톨릭센터.
 5. 천호 피정 안내 : 9월9일(목) 주제-순교자들의 신심, 강사-김진소 신부, 문의 73-6600.
 6. 교도소 개학미사 : 9월1일(수) 오후2시30분, 후원회원과 함께.
 7. 푸른군대 피정 : 9월2일(목) 천호 피정의 집, 출발-덕진 성당 오전9시.
 8. 빈첸시오 교구 중앙이사회 : 9월4일(토) 오후3시 주현동 성당.
 9. 성모의 기사회 : 9월4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 축! 영명 : 4일(성모이세) 이상섭, 송영진 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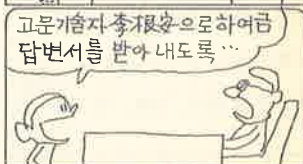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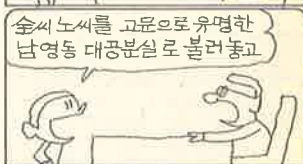
- **성소모임** 성바로말수도회 : 9월5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 9월5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종이타올을 사용하지 맙시다

종이는 나무가 원료로서 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종이타올은 염소로 표백된 것이므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요심이 (1044) 김병오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이옥준 루시아·향년 77세)를 잃은 저희들을 위로해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시는데 대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데레사 다빌라 수녀 정춘현 바오로-배소자 아녜스 정승현·태현·양현 신부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1. 판매기간 : 8.21(토) - 10.10(일)
2. 가격 : (8Kg 1상자당)
특 : 20,000원 대 : 17,000원
중 : 14,000원 소 : 8,000원
3. 구입 문의 : (0658)43-0881, 0880 43-4236

알림

천주교 이리 공동묘지에 있는 망인의 연고자를 찾습니다.

- 연락처 : (0653)842-0150
- 묘지관리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제3기 비디오카메라 수강생 모집

8mm, VHS비디오카메라 촬영, 편집기법 개강 9월6일

원장 방수경(세실리아) 전북비디오학원

☎ 231-1780, 75-7631

구(九) 죽염

- 판매처 모집
- 구입하실 분 연락주시시오.
- 신경성 위장병, 당뇨, 무좀(습진) 만성 피로 등.
- ☎ (0658) 547-9970 44-4760
- 호출기 012-688-0993

축! 이전

김석주 내과 의원

김석주(토마스) 서정애(에메렌시아) 육지구 축협도지회 맞은편 ☎ 251-2686

산 농 서 실

고영선(마태오) 송춘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 ↔ 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연중 제 22주일

1. 성시간 : 2일 저녁미사 후,
 2. 병자 봉성체 : 3일, 사무실에 신청
 3. 사목회 : 3일 저녁미사 후,
 4. 모임 : ①반회장(2일 전 10시30)
②올드레이(5일 장엄미사 후)
차주 모임 : ①성심회, 자모회(7일) ②꾸리아, 장우회(12일)
 5. 알림 : 부녀회에서 벌치 액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Kg-8,000원 10Kg-15,000원
다음주일은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입니다.
 6. 금주 정소 : 중노21, 22반, 차주 정소 : 중노23, 24반.
- ☐ 지난주 봉헌금 : 1,050,630원 ☐ 교무금 : 1,455,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예비자 교리 : 일요일 공식미사 후(29일) - 수녀님반, 목요일 저녁미사 후(9월2일) - 신부님반,
 2. 영세자 첫교백 : 9월4일 오후 6 : 30
 3. 성체강복 : 9월2일 저녁미사 후,
 4. 회합 : ①자모회-9월2일 오전 10시
②대건회-5일 공식미사 후
③사목회-5일 저녁미사 후
- 금주 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육경수 씨 부부
 봉헌-김종성 씨 가족
차주 전례 : 해설-유복규, 독서-유달수 씨 부부
 봉헌-강희술 씨 가족
- ☐ 지난주 봉헌금 : 591,120원 ☐ 교무금 : 810,31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록

◎ 9월은 순교자 성월

1. 본당 발전을 위한 2차 헌금 : 오늘 미사 중,
 2. 모임 :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 요셉회-다음주일 ③ 사목회-4일(토) 저녁미사 후
 3.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4. 주일미사 참여와 정성스런 기도와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5. 주일미사를 결하지 말고 미사 시작 20분 전에 성당에 옵시다.
 6. 차주 전례 : 해설-김미남, 독서①박귀철 ②이석남
 봉헌-안정만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 324,700원 ☐ 교무금 : 112,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연중 제22주일 ! (9월은 순교자 성월 !)

1. 반장회 : 8월29일(오늘) 공식미사 후(권원 참석바람)
 2. 사목회 : 9월1일(수) 오후 8시(시간 엄수바람)
 3. 자모회 : 9월1일(수) 오전 10시30분
 4. 꾸리아 : 9월5일(다음주일) 오후 2시
 5. 혼인 강좌 : 매월 마지막주일 가톨릭센터에서 있음(오전 9시30분)
- * 혼인을 앞둔 분들은 필히 혼인 강좌를 이수하시기 바람.
- ☐ 지난주 봉헌금 : 1,017,800원 ☐ 교무금 : 1,262,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연중 제22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 요셉회, 사목회.
 2. 첫영성체 교리 : 8월31일(화) 시작 오후 6시30분.
 3. 성지순례 : 구역, 반장, 자모회, 정가대 9월2일(목)→베논(8시 출발, 시간엄수)
 4. 반미사 : 9월1일(수) 1구역1반, 2반, 저녁 8시.
 5. 참가를 판매 신축기금 410,000원 봉헌. 감사합니다.
 6. 청소 봉사 : 3구역 1반, 2반.
- ☐ 지난주 봉헌금 : 772,600원 ☐ 교무금 : 1,513,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불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1. 금주 : 혼인 강좌(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2. 성지순례 : 9월1일(수) 오전 11시, 3. 배에따회 : 1일(수) 오전 11시
 4. 성체강복 및 조배 : 2일(목) 오전 10시, 5. 성모성심회 : 2일 오전 10시
 6. 병자 봉성체 : 3일(금) 오후 2시.
 7. 교리교사를 위한 피정 : 4일-5일 나바위 교육관
 8. 레지오 마리아 성지순례 : 9월5일 오전 8시 집결, 장소 : 미리네, 미사도구 지참.
 9. /9월5일 성지순례 관계로 미사시간 변경 : 오전 5 : 30, 10 : 30 (공식미사) 오후 3시, 7시.
 10. 성당 내부 벽갈이 공사 관계로 공사기간중 평일미사는 강당에서
 11. 매주 공식미사중에 어려이 돌보아줍. - 사랑방(주최-빈첸시)
 12. 요셉회 : 4일 12시.
- ☐ 지난주 봉헌금 : 1,910,5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1. 성시간 성체강복 : 2일 저녁 8시 범석규 신부님 특별강론.
 2. 견진 대상자 : 12월까지 접수, 9월26일로 변경.
"타본당에서 세례받은 분께서는 세례 증명서 첨부"
 3. 성지순례 : 5일 해미→출근, 전 6시 출발, 중석 개인 지참.
 4. 교도소 개혁미사 : 1일 후 2시30분 "후원회원 함께"
 5. 유아세례 : 4일 후 3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6. 교리교사 피정 : 4일~5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7. 평신도 강론 : 오늘 우수환 제경부장 8. 부녀회 : 어머니미사.
 9. 가정방문 : 31일-강남삼성1동 전 9시30분, 2일-강남삼성2동 전 9시30분, 3일-19구역1반(우성주백) 전 9시30분, 19구역2반 후 2시, 10. 농민을 위한 피정 : 30~31일 4시 출발.
- ☐ 지난주 봉헌금 : 1,336,840원 ☐ 교무금 : 1,503,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갈

1. 전례자회 : 1일(수) 오후 8시30분.
2. 성모회 : 다음주일 미사 후.
3. 사목회 : 다음주일 오후 8시.
4. 성소후원금은 매월 첫째주일에 납부해주시시오.
금주 전례 : 이완자, 강희연, 독서·봉헌 : 송미옥, 방정근
차주 전례 : 최정순, 손금구, 독서·봉헌 : 송봉자, 오한철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정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오늘은 연중 제 22주일

1. 유아세례 : 오늘 오후 4시.
 2. 구약성서반 모집(보좌신부님) : 9월부터 매주 수, 목요일 오후 8시,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3. 사목회 : 9월3일(금) 오후 8시.
 4. 성모기사회 : 9월4일(토) 10시30분.
미사 안내 : 금주-정의의 기술, 바다의 별
차주-동정녀, 다윗탑
- ☐ 지난주 봉헌금 : 1,442,330원 ☐ 교무금 : 1,560,000원

*** 효지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안내 :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요셉회-공식미사 후
 ③여성분과회-3일(금) 10시미사 후
 2. 본당신부님 휴가 : 30일(월)-4일(토) 미사는 없고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
 3. 성지순례 : 9월12일 7시출발, 성인 7,000원, 학생 5,000원(오늘까지 접수) 4. 전신자본은 예비자 1인씩 인도합니다. 입교식-10월5일(화) 차주모임-꾸리아 금주 전례 : 해설-강인성, 독서 ①심학설 ②김정희, 봉헌안내-임승동 부부, 경병태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이한은, 독서①권호상 ②허선영, 봉헌안내-양형섭 부부, 이태영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 1,315,080원 ☐ 교무금 : 2,104,000원